

# 트럼프 “이란과 휴전 유지...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이란 제안 명칭”...군사작전 재개 가능성 시사하며 이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만큼 이란이 좀처럼 양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 재개 가능성이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명칭과도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은 마음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다. 농담조였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취재진 문답에 앞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연설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경찰 주간 기념 만찬에서 행정부 구성원 및 법 집행 기관 지도자들을 위해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 들

며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더욱 큰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협상안에 대해 전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시사 프로그램 ‘풀메저’ 인터뷰에서도 이란을 2주간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2월말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종료됐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3-15일 중국 방문에 나서기 전에 이란과 전쟁 종식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타결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을 계속 해왔으나 현재로서는 방종 전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종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 및 압박을 요청하며 시 주석의 협조를 통한 이란 전쟁 해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폐쇄된 텐탄공원 치넨텐의 입구 12일 중국 베이징 동청취 텐탄공원의 명소인 치넨텐의 입구에 폐쇄 안내판이 놓여 있다. 공원 측은 보수작업을 이유로 공원 곳곳을 통제했으며, 14-15일 이틀 동안은 공원 전체를 폐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란 ‘북한 북제품’ 소형잠수함 투입...호르무즈 얕은해역 최적화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직후 공개 “고속정·드론 ‘벌떼 공격’ 나설 수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롭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굳히려고 소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란 반관영 타스니프 통신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형 잠수함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최소 16척의 가디르급 소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승조원 10명 미만이 탑승하는 이 잠수함은 어뢰 2발 또는 중국산 C-704 대함 크루즈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이란은 북한의 잠수함 설계를 복제해 가디르급을 만들었다고 익명의 관계자가 전했다. 가디르급은 수심이 얇은 호르무즈 해협 지형에 맞춰 특수 설계된 모델로 전해졌다. 가디르급은 배수량이 115t에 불과해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6천t급)이나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옛 소련제 킬로급 잠수함(2천t급)보다 훨씬 작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디르급 잠수함의 실전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가디르급은 현대식 잠수함에 비

해 소음이 심하고 승조원들의 운용 경험도 적다”며 “잠은 정비 문제도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수심이 깊어야 100m 수준이라 은폐가 어렵고 미군의 음파탐지기에 포착되기 쉽다는 지형적 약점도 있다.

실제로 이번 전쟁 중 이란 잠수함 부대가 전과를 올린 기록은 아직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란의 유일한 정규 잠수함인 킬로급은 개전 초기 부두에 정박 중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의 잠수함을 알릴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엠마 솔즈베리 연구원은 “잠수함을 통한 기뢰 매설도 큰 위협”이라며 “이란이 고속정, 드론과 함께 잠수함을 투입해 미 군함을 겨냥한 ‘벌떼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日 작년 곰 출몰 5만건 ‘역대 최다’...1만4천700여마리 잡혀

일본 정부가 집계한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연간 곰 출몰 건수가 5만776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환경성에 따르면 2025년도 곰 출몰 건수는 종전 최다였던 2023년도(2만4천348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아카타현 1만3천592건, 이와테현 9천739건, 미야기현 3천559건 등 순으로 출몰 건수가 많았다.

이 가운데 포획된 곰은 1만4천720마리로 전년도의 거의 3배로 늘었다.

포획된 곰의 대부분인 1만4천601마리는 사살됐다. /연합뉴스

## UC버클리, 美대학 최초 한국어수업 83년만에 첫 한국학 졸업생

미국 서부 명문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가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83년만에 한국학 전공 졸업생을 배출한다.

UC버클리 동아시아학과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리는 졸업식에서 복수 전공으로 한국학을 선택한 학생 3명이 학위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지 1년 만에 거둔 첫 결실이다.

동아시아학과 안진수 교수는 이번 한국학 졸업생 배출에 대해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뜻깊은 일”이라며

“고국이 일제 강점 아래 놓여 있던 1943년에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곳이 바로 UC버클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학 학부 한국학 전공 설치에 노력해온 안 교수는 한국학 대학원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